

대행 스님

그냥 앉고 서고 먹고 자고 이러는게 그대로 부처님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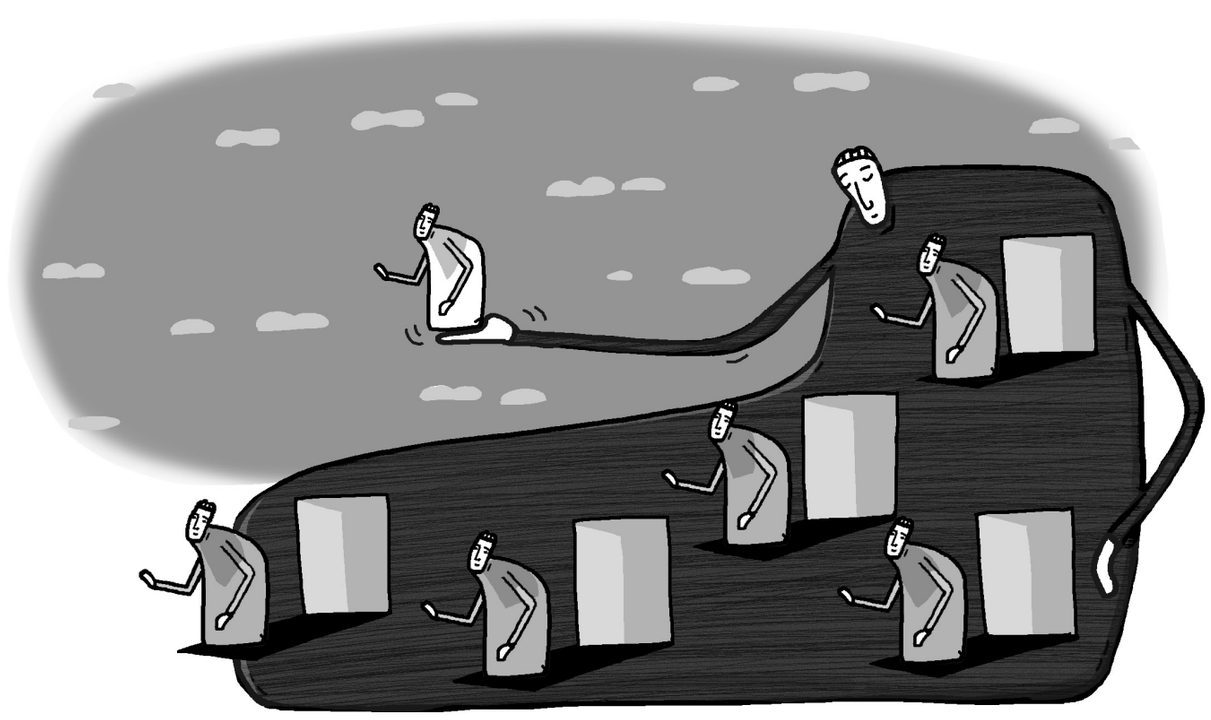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불교는 어느 한계점을 가지고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 없는 게 없기에 풀 한 포기도 불교라는 뜻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 알라신교,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또 남묘호랑개교 또는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한 버스를 탄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란 이름입니다. 꼬리표입니다.

그러나 불교라는 이 자체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시면 바로 그게 교입니다. 그리고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니만큼 불교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톨릭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타의에서 구하고 타의에 맹종하고, 내가 잘되게 해 달라고 이리 놓고 빌고 저리 놓고 빌고 고상을 걸어 놓고 빌고 '성모마리아!' 하고 타의에서 구하거나 십자가를 걸어 놓고 타의에서 구하거나 부처님 모셔 놓고 타의에서 구하거나, 이거는 전부 여러분이 미신의 짓을 해서 미신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에 그렇다면 그 차원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요다음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물이 얼음이 됐다가 녹듯이 인간도 잠시 없어졌다 잠시 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와서 또 그 차원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마련이거든요.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넓게. 깡통은 깡통대로 모여 있고 금은 금대로 모여 있고 은은 은대로 모여 있고 넝마는 넝마대로 모여 있듯이, 사람도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누가 이리로 모이라고 안 해도 다 끼리끼리 모여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차원도 끼리끼리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부딪고 서로 울고 괴로워하고 가난을 밀치지 못해서 애쓰고 끝내는 허무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끊질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공부는 부처님 당시에 가르쳐 주신 그 뜻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려면 삼천 년 전이다 삼천 년 후다 그런 게 있지만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은 삼천 년 전이 따로 없고 오늘입니다.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입니다. 삼천 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도망가고 오늘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천 년 전의 그 진리가 지금도, 바로 오늘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발과 종점이 따로 없듯이.

여러분이 타는 데를 시발점이라고 그러지만 바로 거기서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고 갔는데, 시발점이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도 또 종점입니다. 그래서 종점과 시발점은 둘이 아니듯이 진리도 역시 그러하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24시간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만남이나 모두가 고정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대로 말씀을 안 해 주고 당신은 왜 그런 말만 하느냐고 그러실지 모르죠. 그러나 팔만대장경을 49년을 설하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오밀조밀, 또 변하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죽고 생하고 이러는 도리를 그때에 방편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지금도 역시 방편을 잘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체를 비유해서 볼 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갑니다. 지수화풍인데 그게 허무한 게 아닙니다. 지수화풍이 우리의 생명을 생기게 해 준 바로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이 몸뚱이다 할지라도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지 못하시걸랑 여러분 인체 속의 이 오대양 육대주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장육부 안에 들어 있는 생명체 의식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모습들이 전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많은 줄 모르시죠? 그렇게 이름을 많이 가지고 계신 줄 모르시죠?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의 그, 사장이라고 그럴까, 계장이라고 그럴까, 지배인이라고 그럴까? 그 지배인이 돼서 여러 공장을 이끌어 가시는 줄 모르고 계시죠?

여러분이 한 생각을 내면, 악을 내든지 선을 내든지 잘못 내든지 또 잘 내든지 다 따라 주는데, 이 속의 모든 중생들을 가령 10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10억입니다. 이 육신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집 속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10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량으로 쳐서. 그러면 그 10억의 마음들을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처인데, 지배인은 부처인데 이 배 속 오장육부에 전부 중생들이 들어 있어요. 그것이 인과로 인해서 그 모두가 뭉쳐서 바로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뼈와 살을 빌려서 몸을 받았지만 거기 영혼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임신이 되질 않습니다.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있음으로써 영혼이 같이 삼합이 한데 합쳐져야 생하기 때문에 그걸 삼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삼신이 한데 합쳐서 생명이 하나 구성될 때에 정자 난자가 우글우글 합쳐서 많은 그 모습이 있다가 한 개만 남기고 다 없어지고, 그 모습은 다 없어졌으나 과거에 살던 의식들, 악업 선업 이런 자기가 살던 그 인연대로 모두 자기 몸속에 뭉쳐서 그 영혼 속에 다 짊어지고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오장육부에 인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다 지금 뭉쳐서 한 조가 돼 가지곤 이렇게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이나 또 내 몸 안이나 다 말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 가고 요다음에 또 자세히 질문하신다면 대답해 드리죠. 그런데 그거를 다 지배해 가지고 나가려면,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고정됨이 없이 쉴 사이 없이 초월해서 돌아갑니다. 우리도 24시간 돌아가는데,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말입니다,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이거는 천체물리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또. 의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몸에서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만이 한마음으로서 내 지배하는 마음대로 순리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가? 첫째, 내가 주인공한테 맡긴다. 주인이자 공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인공이 뭐 말라빠져 죽은 거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없다면 이 세상이 벌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부처도 없고 종교도 없고 세상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겼으니까 소크라테스 말마따나 "자기부터 알라. 인간부터 돼라. 인간이 된다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제재(制裁)하고 물리가 터질 것이니라." 했습니다. 부처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 드릴 것은, 처음이니까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얘기해 드릴까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 속의 그렇게 많은 중생들이 찰나찰나 마음을 내게 해서, 여러분을 자꾸 괴롭게 하고 그냥 외롭게 하고 병고로 또 휘달리게 하고 그러니 여러 인과, 인과라는 건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대로, '주인공' 하는 것은, 주인공이다 하는 걸 잘 들으세요.

하나는,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건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오신통을 굴린다면 누진통에서 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신통을 벗어나야 누진통에서 그 통을 굴리지 그 통 안에 있어서는 통을 못 굴린다, 통 바깥으로 나와야 통을 굴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 22면으로 계속

